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 안부 / 배지인

7. 17 - 8. 14 2026

Press release

송정원의 시 「반대편에서 만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

관통해본 사람은 어디든 존재하는 법을 알게 될 테니.”

기억으로 남은 이미지는 순간을 붙잡기보다 시간이 흘러갔음을 드러낸다. 그것은 존재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지금은 부재한 것을 마주하게 한다. 안부의 사진과 배지인의 회화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순간을 붙들어 두려 하지만, 결국 화면에 남는 것은 완전한 재현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다. 어떤 이는 아직 잃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다가올 상실을 예감하고,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날들을 되짚으며 남겨진 기억을 더듬는다. 과거와 미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현재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고 교차한다.

이번 전시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는 사진과 회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사라진 뒤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부와 배지인의 2인전이다.

안부의 사진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록하기보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대한 감각을 향한다. 그의 작업에는 사람이 떠난 공간, 스쳐 지나간 빛, 이름 붙일 수 없는 정적이 머문다. 화면 속 풍경은 명확한 서사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이미 상실의 예감이 스며 있다. 수면 위에 번지는 빛, 비어 있는 의자들 사이에 드리운 그림자, 오후의 햇살이 남긴 자국들은 모두 지금 존재하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들에 대한 조용한 암시이다. 안부의 사진은 존재를 기록하기보다 존재를 둘러싼 기척을 붙들며, 사라짐 이전의 시간을 화면 속에 오래 머물게 한다.

배지인의 회화는 기록된 이미지와 기억 사이의 간극에서 출발한다. 아버지가 남긴 가족사진과 유년의 풍경, 오래된 관계의 흔적은 작업의 출발점이 되어 화면 위에서 다시 호출되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지는 않는다. 인물들은 흐려지고 풍경과 뒤섞이며, 공간은 기억의 층위 속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겹쳐지고 침윤하는 색의 흐름은 과거의 기억이 지닌 모호한 경계와 현재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작업에서 그는 오래된 사진 위에 지금의 해와 나무를 겹쳐 올리며, 서로 다른 시간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만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스마트폰으로 수집한 해와 나무는 하루의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의 표식이자, 멈춰 있던 과거의 이미지 위로 현재를 불러오는 매개가 된다. 과거는 현재와 만나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현재는 과거를 품으며 또 다른 기억이 된다. 그의 회화에서 기억은 더 이상 고정된 흔적이 아니라 시간들이 만나고 스며들며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이다.

두 작가의 작업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이른다.

사라진 것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하나는 다가올 상실의 시간을 응시하고, 다른 하나는 지나간 시간을 현재의 풍경과 다시 만나게 한다. 사진과 회화는 기록과 재구성, 예감과 회상, 현전과 부재 사이를 오가며 이미지가 품고 있는 복수의 층위를 드러낸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던 두 시선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교차하고, 시간은 더 이상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전시는 상실을 단순한 결핍이나 소멸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감각이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잔향이며, 현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시간으로 존재한다.

관객은 작품 앞에서 누군가의 기억을 바라보지만, 곧 자신의 시간과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억과 상실, 남겨진 감각들을 품은 채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는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들과 이미 사라진 것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시간들이 한 공간 안에서 조용히 교차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과 상실이 남긴 보이지 않는 자취를 따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글. 김선희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

안부 / 배지인

7. 17 - 8. 14 2026

Press release

Even in Different Times

In Jung-won Song's poem "Meeting on the Other Side," she writes:
"Even in different times, those who have once passed through will know how to exist anywhere."

An image preserved in our memory reveals not only a captured instant but the passage of time itself. They summon what once existed while confronting us with what is now absent. Anbuh's photographs and Jiyeon Bae's paintings each attempt, in their own way, to hold a moment in place—but what ultimately remains on the surface is not a faithful representation of that moment, but a trace of time that has already passed.

We all dwell on different moments in time. Some look at what they have and dread losing it; others look back on days already gone, longing to return to those moments left behind. Past and future may seem far apart, but they meet at a single point: the present.

This exhibition, Even in Different Times, is a two-person show by Anbuh and Jiyeon Bae. Through distinct mediums of photography and painting, they speak of time, memory, and sensations that last long after their causes have disappeared.

Anbuh's photographs are less concerned with documenting a specific event or figure than with concern for things that will one day vanish. His work focuses on spaces people have just vacated, light that will soon fade, emptiness and stillness. His scenes offer no clear narrative, yet a clear premonition of loss runs through them all. Light spreading across water, shadows among empty chairs, the soft glow of the afternoon sun—all are quiet intimations of things that existed at that moment but only temporarily. Rather than recording presence itself, An Abu's photographs capture the aura around that presence, preserving the moment just before it disappears and allowing it to linger on the surface of the image.

Jiyeon Bae's paintings, meanwhile, exist in the gap between a photograph and a memory. Family photographs left behind by her father, scenes from childhood, moments from relationships long past—these are the starting points of her work. She summons them back onto the canvas, but it is impossible to restore them to their original form. Figures blur and dissolve into the landscape around them; space itself is dismantled and rebuilt within layers of memory. Colors overlap and bleed into one another, suggesting both the hazy boundaries of memory and its capacity to be transformed by present-day recollection. In her recent work, she has painted an image of the sun and trees in the present day on top of old photographs, creating scenes where different times merge within a single frame. In her paintings, memory is not fixed and permanent, but a continuous process in which different moments seep into each other and are constantly remade.

The two artists begin using different sources of inspiration, but arrive, in the end, at the same question: **What happens to that which disappears?**

This exhibition does not define loss as a sudden absence or disappearance. Loss is, instead, a sensation of a future that has not come and the resonance of a past that will not return.

Standing before these works of art, viewers can look into someone else's memories, but soon find themselves facing the truth about time. And they will come to discover that other people who have lived entirely different lives are, even now, living through the same experience of time—each weighed down by their own memories, losses, and residues of emotion.

Even in Different Times is not a record of things that used to exist. Instead, it is a story about the moment when different times fuse within a single space—somewhere between physical reality and memory, that place where things that have not disappeared can be alongside things that have. Perhaps we are all living through our own individual experience of time, and yet, following the invisible traces left by memory and loss, we may be passing through the very same time after all.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

안부 / 배지인

7. 17 - 8. 14 2026

About
the artist

안부 Anbuh

학력

2015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

2011 |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졸업

개인전

2024 | 파라솔,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한국

2020 | 잘-못-하다, 킴인터치, 서울, 한국

2019 | 관사적관계, 레인보우큐브, 서울, 한국

2인전

2026 | Echoed Scenery, 그블루 갤러리, 서울, 한국

2012 | Come up, 에프엔아트 스페이스 갤러리, 서울, 한국

그룹전

2026 | 새의 선물 : Borderline, 별관, 서울, 한국

2025 | Happy Birthday 3, 그블루 갤러리, 서울, 한국

2024 | 무수히 뚫린 창과 여러 겹의 세계, 신한갤러리, 서울, 한국

| 드로잉-그로잉, 이음갤러리, 서울, 한국

2023 | 오디세우스의 노래, 별관, 서울, 한국

프로젝트

2022 | 퍼펙트 패밀리 [휴먼렌탈서비스], 파라다이스 아트랩, 인천, 한국

| XXX Collective [HxOxMxE],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한국

2021 | 박혜수 [Art D-RAM: 실연활용법], 아트센터 예술의시간, 서울, 한국

2015 | 김동규 [비정형항해일지] 아트선재 프로젝트,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18- | 복합예술공간 [별관] 운영



배지인 Jiyeon Bae

학력

2024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 재학

2019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6 | <손과 손사이>, 별관, 서울

2025 | <달은 오후>, 공간형, 서울

2024 | <그 모든 일련의 질량 없는 것들>, 소현문, 수원

2022 | <비, 밤, 별>, 갤러리그리다, 서울

그룹전

2026 | <하루가 사라진 봄>, owl gallery, 후쿠오카, 일본

|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림>, 미오갤러리, 서울

2025 | <Each, Separate, Paralle>, HAUS, 서울

| <드로잉그로잉>, 보안여관 스페이스1, 서울

2024 | <열두시와 열두시>,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 <1초의 이름과 영원의 시>, 도도그랜트 1차 선정작가전,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2023 | <검재 내일의 작가 수상자전>, 검재정선 미술관, 서울

| <K의 이름 : the unknown name for K>,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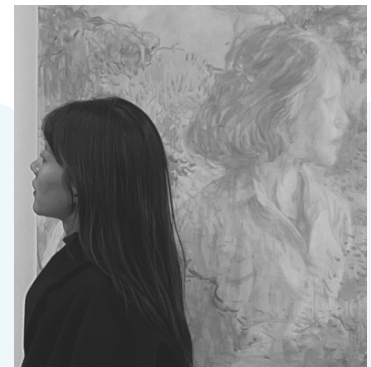
2022 | <셋이 모여 하나>, 옥상팩토리, 서울

수상 및 선정

2026 | K-ART 청년 창작 지원사업 선정, 경기문화재단, 수원

2024 | 경기예술인 생애 첫 지원 선정, 경기문화재단, 수원

2023 | 내일의 작가상 수상, 검재정선 미술관, 서울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

안부 / 배지인

7. 17 - 8. 14 2026



안부 Anbuh

관계의 흔적 / 감정의 파편 / 모순의 간격

나-나와의 관계, 나-사회(환경)의 관계, 나-타자와의 관계에 집중한다. 관계는 흔적을 만들고 그 관계속에서 생성된, 감정의 파편을 조각모음 한다.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의 모습에서 기어코 비집고 들어가 틈을 만들고, 틈은 다시 낫설고 조금은 위태롭게 새로운 모순의 간격을 만든다.

작가 노트

알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생각한다. 아니, '생각이 되어 지고는 한다'는 것이 낯졌다.
정확히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를 상실이 떠오를 때 커켜이 쌓여 있던(그렇다고 믿었던) 견고한 착각은 이내 흐릿하게나마 가까운 거리 안으로 다가온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생각한 게 아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생각 한 것도 아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지도 않았다. 다만, 그 착각 속의 현상은 유연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않으며, 무너지거나 부러지고는 했다.
마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읊조리는 혼잣말 같았다.

빛 한줄기가 곁에 머무르다, 이내 곧 떠났다. 매일의 순간에 잠시 머무른 빛은 저 너머 드러나지 않던 것까지 밝혀 주었다. 결코 어둠은 아니었다. 그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 정의내려야 하는 답을 바라지 않는 질문을 해본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어디로 가는가, 위에서 아래로 흘렀는가 아래에서 위로 솟았는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남았는가 떨어져 나온 것이 남았는가, 쌓는 것인가 이동 하는 것인가, 있기에 사라지는가 사라지면 남는 것인가.
적어도 사진은 기본적으로 '있음'에서 부터 시작한다. 바라보고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일상에서 포착되어지는 장면을 담은 일종의 꾸밈없는 사진들은 삶과 예술의 경계에 머문다. 머무르는 그 사이의 간극에서 이야기는 흐른다.

끝에 와서야 상실은 시작한다.

배지인 Jiyeon Bae

작가 노트

사진을 바라본다. 인물과 두 눈을 맞추고 손을 바라본다. 당신을 그리겠다고 정하기까지의 시간은 길지 않다. 사람을 그린다. 얼굴이 가득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 감정은 얼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기에 서 있는 동세, 옷을 잡은 손, 기울어진 어깨로 은근한 뉘앙스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표정이 비어진 자리에 어제 본 나무의 그림자가 들어선다.

조난된 좌표 위에서 방황하는 현재를 회화로 호출한다. 기억은 어딘가에 맴돌아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진에 맴뎠 시간이다. 그 조각들을 캔버스 위에서 겹치고 지운다. 이미지는 처음의 질서로부터 멀어진다. 연약한 기억은 캔버스 위로 엉겨 붙으며 본래의 시간을 잃는다. 벌어진 과거의 틈 사이로 현재가 들어선다.

완벽한 완성의 지점이 아닌 회화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현재를 추적한다. 회화에 완성은 없다. 그림 그리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다음 캔버스로 넘어간다. 완성의 유예일지도, 유보일 수 있다. 데드레코닝(Dead Reckoning)은 향해 중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에서부터 이동한 거리와 방향 같은 기록을 계산하여 지금의 좌표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작업은 완성된 상태로 고정되지 않고 다음 그림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좌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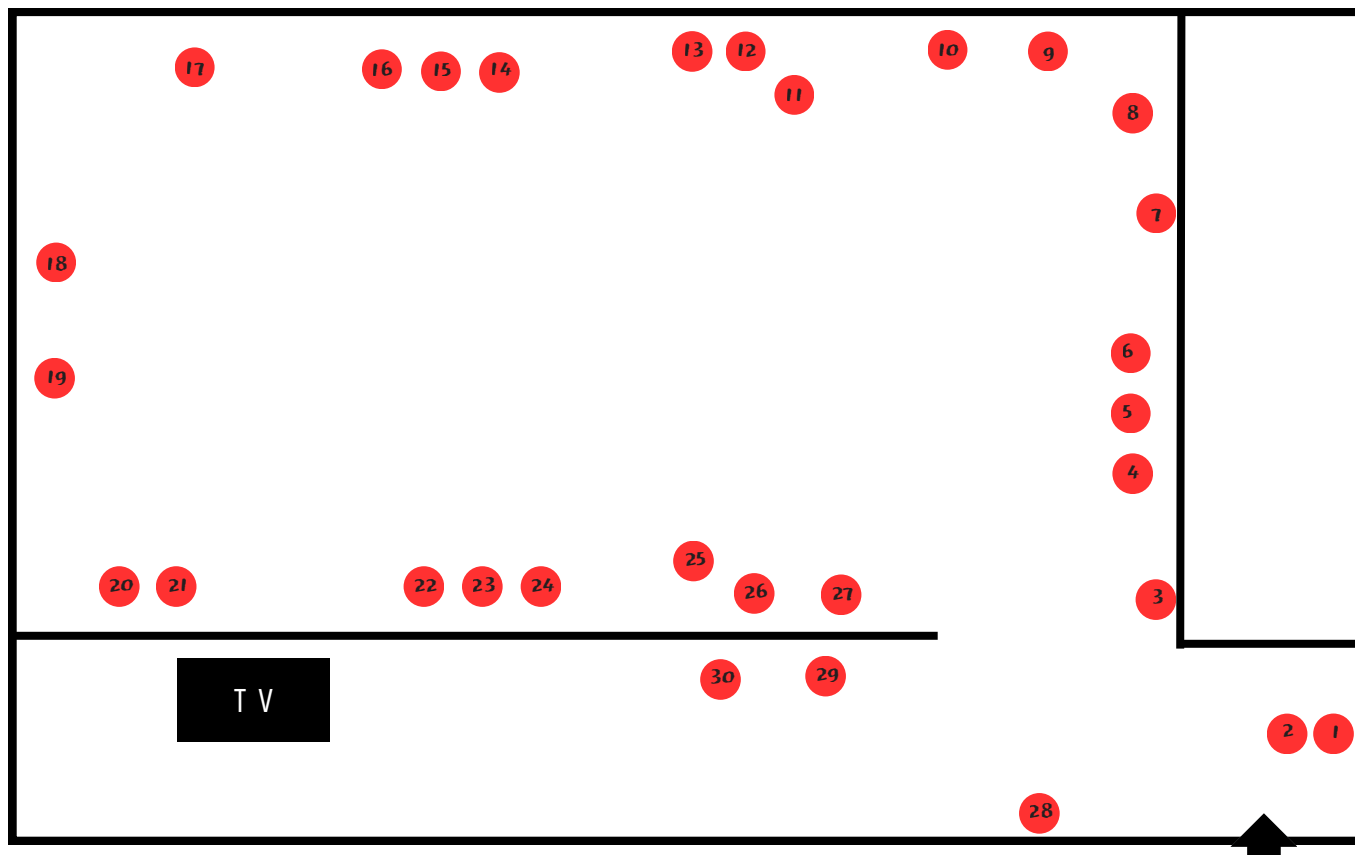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서로 다른 시간에 서 있더라도

안부 / 배지인

7.17 - 8.14 2026



1. 안부 <초음파 Ultrasonic Waves>
2025, Archival pigment print, Total 30x80cm
Each 20x30cm
2. 배지인 <아가야 Little one>
2026, oil on traditional paper, 22.7x15.8cm
3. 배지인 <소녀와 바다 the girl and the sea>
2024, oil on traditional paper, 27.3x22.0cm
4. 안부 <Sunny>
2026, Archival pigment print, 53.3x40cm
5. 안부 <Crows >
2026, Archival pigment print, 53.3x40cm
6. 안부 <No Music >
2026, Archival pigment print, 53.3x42cm
7. 배지인 <뒷모습 Golden Backlight>
2026,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33.4x24.2cm
8. 배지인 <찌려보기 Giving the Side-Eye>
2026,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60.0x50.0cm
9. 배지인 <Golden hour>
2024, oil on canvas, 45.5x37.9cm
10. 안부 <다시, 여기>
2026, Archival pigment print, 66.6x50cm
11. 안부 <Shadows Fall>
2026, Archival pigment print, 40x30cm
12. 배지인 <찬장 The Cupboard>
2026, oil on traditional paper, 22.7x15.8cm
13. 배지인 <회전목마 Merry-Go-Round>
2026, oil on traditional paper, 22.7x15.8cm
14. 안부 <Olive Tree>
2026, Archival pigment print, 40x30cm
15. 안부 <Lighter>
2026, Archival pigment print, 40x26.8cm
16. 안부 <Brighter>
2026, Archival pigment print, 40x30cm
17. 배지인 <해변에서 At the beach>
2026,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90.9x72.7cm
18. 안부 <Flows>
2026, Archival pigment print, 160x120cm
19. 배지인 <흠 없는 마음의 축복 The blessing of a spotless mind>
2024,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130.3x162.2 cm
20. 안부 <Snow Everywhere>
2026, Archival pigment print, 53.3x35.5cm
21. 안부 <White Day>
2026, Archival pigment print, 66.6x50cm
22. 안부 <밤지킴이 Night keeper>
2025, Archival pigment print, 40x30 cm
23. 안부 <눈SnoW>
2024, Archival pigment print, 40x30cm
24. 안부 <오르골 Orgel>
2026, Archival pigment print, 40x30cm
25. 배지인 <나무를 지키는 아이들 The Tree Keepers>
2026,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33.4x24.2cm
26. 배지인 <사랑을 담아 With Love>
2026,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53.0x45.5cm
27. 배지인 <날아간 소원 A Wish Blown Away>
2026,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90.9x72.7cm
28. 안부 <생각의 꼬리 Tail of thought>
2019, Archival pigment print, 40 x 30 cm
29. 배지인 <노란 크리스마스 Yellow christmas>
2024, watercolor and oil on canvas, 116.8x91.0cm
30. 안부 <Sway way >
2023, Archival pigment print, 103x75cm